

192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와 ‘민중’*

허수

1. 머리말

단재 신채호의 사상 전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은 ‘민족’과 ‘민중’이다. 그의 사상을 선도한 것은 1900년대에는 ‘민족’이었으나 1920년대에는 ‘민중’으로 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기 신채호의 사상을 파악할 때 다음 두 가지 사안에서 의견이 갈린다. 첫째, 그가 새롭게 사용한 ‘민중’과 그때까지 견지해온 민족주의 사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정치사상과 역사인식·역사서술 간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⁰⁰¹

첫째 사안에 대하여 신일철과 김종학은, ‘민중’이 아나키즘 혹은 사회주의의 언어였지만 그것의 사용으로 신채호의 ‘자강론적 민족주의’는 ‘민중적 민족주의’로 이행했다고 보았다.⁰⁰² 1920년대의 변화를 민족주의 사상 내에서의 간극

*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9일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가 개최한 제10차 국내학술대회 “한국 근현대 역사학과 민족, 민중, 인민”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당시 발표 제목은 “신채호의 글에 나타난 ‘민중’의 편재(偏在)와 그 의미”였다.

신 혹은 진화로 파악한 것이다. 반면 이호룡은 신채호의 ‘민중’ 사용을, 그가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 아나키즘으로 나아간 증거로 간주했다. 그에 따르면 “3·1 운동을 통해 민중을 재발견”한 신채호는⁰⁰³ ‘새로운 민족해방운동으로 아나키즘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조선혁명선언’의 민중직접혁명론은 아나키즘에 입각한 민족해방운동론이자 사회혁명론’이었다.⁰⁰⁴

이처럼 신채호의 ‘민중’ 사용을 민족주의의 진화로 파악하는 입장과 아나키즘 수용의 증거로 간주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채호에 대한 아나키즘의 영향을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⁰⁰⁵ 그럼에도 ‘민중’ 개념의 출현이나 ‘민중’ 관련 용례의 사용이라는 ‘요소’적 차원의 변화가, 민족주의 사상이라는 ‘틀’의 변화까지 초래했는가 여부를 논증하기란 간단치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둘째 사안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안은 「조선혁명선언」(이하 「혁명선언」으로 줄임)에서 보이는 ‘민중혁명론’ 혹은 그것에 반영된 아나키즘적 측면이, 역사인식을 집약한 「조선사」총론(이하 「총론」으로 줄임)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과 관계 깊다.⁰⁰⁶ 여기에 대해서 이호룡은 「조선사」본문과 더불어 「총론」이 이미 1921년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총론」이 1924년에 작성되었다는 학설을 부정한 것이다. 이호룡에 따르면 「총론」은 신채호가 아나키즘을 ‘체계화’한 1923년 1월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그 후 신채호가 「총론」과 「조선사」본문을 아나키즘에 따라 수정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수정은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고, 그 결과 「총론」 등에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잔존한다는 것이다.⁰⁰⁷

그러나 이호룡이 「총론」의 작성 시점을 1921년으로 판단한 점은 논거가 취약하다. 그가 ‘명확하다’며 근거로 제시한 것은, 「혁명선언」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총론」의 한계였다. 「혁명선언」에서는 “철저히 계급투쟁의 관점을 견지” 했지만, 「총론」에서는 “계급투쟁적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관념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다.⁰⁰⁸ 그런데 ‘계급투쟁적 관점’의 강약으로 두 텍스트의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의 이러한 기준은 「총론」, 나아가 「조선사」 전체에서도 점차 계급투쟁적 관점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가졌을 때 성립 가능하다. 나아가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두 텍스트를 동질적인 것으로 부당 전제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호룡은 이런 인식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⁰⁰⁹

한편 김종학은 둘째 시안에 대해 정밀하게 논의하진 않았으나, 「혁명선언」과 「총론」의 관계, 특히 아나키즘적 ‘요소’와 민족주의의 ‘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그는 신채호가 이전부터 견지해온 ‘정신주의적 민족 관념’을 중요시한다. 이 관념은 식민지 지식인의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신채호는 “민족정신의 보존을 위해 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결한 투쟁을 지향”했다.⁰¹⁰ 그에 따르면 신채호의 이런 민족 관념은 아나키즘의 ‘민중 폭력혁명론’과 상통했으므로, 후자의 요소가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서서 김종학은 「혁명선언」과 「총론」의 관계를 이호룡과는 정반대로 파악한다. 그는 신채호가 「조선상고사」를 집필하는 도중에 「혁명선언」을 작성한 사실에 착목하여 두 텍스트를 “신채호의 단일한 사상을 상이한 방식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⁰¹¹ 이때의 ‘단일한 사상’이 민중적 민족주의라는 점은 첫째 시안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김종학의 연구는 신채호 사상의 국면별 전개를 관통하는 내적 일관성을 발견한 데 특색이 있다. 그의 연구는 신채호 사상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새로운 사상 ‘수용’으로 쉽사리 일반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신채호 사상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강한 추구로, 그는 이호룡과

는 다른 방식으로 두 텍스트 간의 차이에 둔감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집필 기간의 겹침에서 ‘신채호의 단일한 사상’을 유추했는데,⁰¹² 이는 근거가 취약하다.

지금까지 1920년대 전반기 신채호 사상에 관한 주요 논점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민중’ 사용이 아나키즘 및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민중’ 사용이 민족주의 사상의 틀을 넘어섰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혁명선언」과 「총론」의 차이에 주목했으나, 두 대립적 견해 모두 그러한 관찰을 경험적 분석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다.

이상의 문제의식 위에서 본 논문은 1920년대 신채호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도식처럼 ‘텍스트’라는 층위를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즉, 개념과 사상 사이에 ‘텍스트’의 층위를 설정하고, 텍스트와 개념의 관계(a), 텍스트와 사상 간의 관계(b)를 ‘텍스트마이닝’이라는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념	=====	〈텍스트〉	=====	사상
(a)				(b)

(a)에서는 우선 ‘민중’과 ‘민족’을 포함한 ‘집단적 주체 관련 용어’(이하 ‘집단적 주체’로 줄임)의 빈도 파악을 통해,⁰¹³ 「혁명선언」과 「총론」의 ‘민중’ 사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그러한 용어가 각각의 텍스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관찰한다. 나아가 텍스트 구조라는 측면에서 두 텍스트 간에 뚜렷한 변별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이다. 이런 검토는 단순한 ‘요소’적 차원의 검토를 넘어 두 텍스트 간의 구조적 비교를 지향한 것이다.

(b)에서는 (a)에서 파악한 「혁명선언」과 「총론」 간의 차이를 신채호 사상의 변화/지속이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르’라고 하는 범주를 도입해서 두 텍스트 및 그와 연관된 다른 몇 개의 텍스트를 함께 분석할 것이다. 특히 역사서술과 정치사상 문건 간의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채호 사상을 둘러싼 기존의 쟁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민중'의 편재(偏在)와 텍스트 구조의 차이

「혁명선언」과 「총론」에 사용된 '집단적 주체'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⁰¹⁴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혁명선언」에서 신채호가 '민중'을 55번이나 사용한 사실과 대조적으로, 불과 1년여 뒤에 쓴 「총론」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⁰¹⁵

<표 1> 「혁명선언」과 「총론」에 사용된 '집단적 주체'의 빈도

(단위: 개)

텍스트 \ 용어	민중	민족	사람	인민	국민	합계
「혁명선언」	55	15	1	9	0	80
「총론」	0	20	51	2	5	78

* 빈도 계산은 디지털 원문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했다.

* 원문 중 괄호 속의 내용은 형태소 분석에서 모두 제외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두 텍스트에서 드러난 '민중' 사용의 대조적 양상을 “‘민중’의 편재(偏在)”라 부를 것이다.⁰¹⁶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신채호의 역사연구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에서 '민중' 편

재를 바라본다면, 신채호는 식민 지배 체제를 극복할 주체로 ‘민중’을 적극 제시했으나, 자신의 역사관을 집약해서 제시한 「총론」에서는 그러한 주체 개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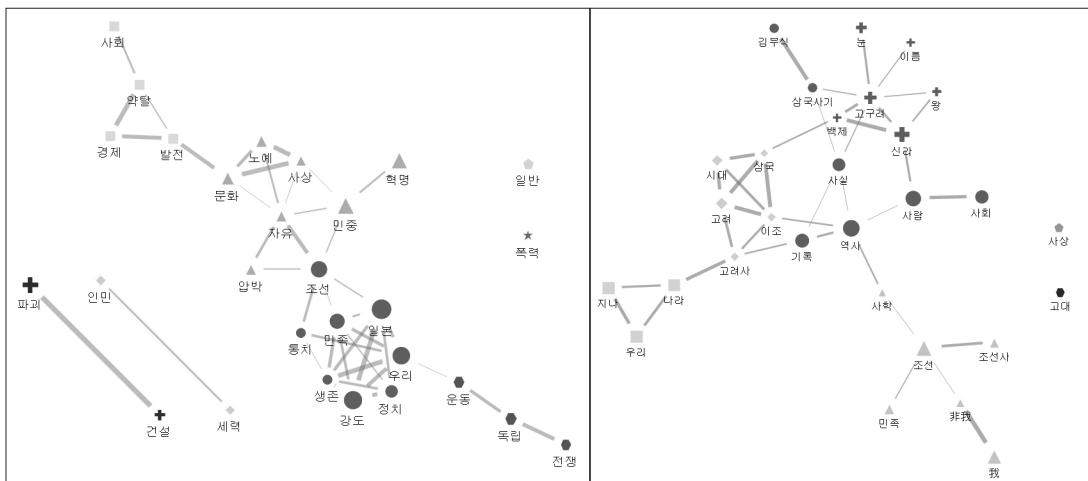
물론 이러한 ‘편재’를 부정하거나 그 양상의 함의를 축소하는 설명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조선사」본문에서 ‘민중’이 사용된 사실을 들어 ‘편재’를 부정 할 수도 있다. ‘민중’은 본문 12개 편 가운데 3편에서 6번, 5편에서 3번, 12편에서 1번, 총 10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⁰¹⁷ 그렇지만 본문에 ‘민중’이 사용되었다고 「총론」의 ‘편재’가 부정될 수 없다. 오히려 「총론」이 가진 무게와 대표성을 고려한다면, 신채호가 본문에서 ‘민중’을 사용했으면서도 「총론」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또 다른 해명으로, 「조선사」의 주 내용이 「조선상고사」인 데 반해 ‘민중’은 주로 근현대의 ‘민’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총론」에서 쓰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당초 신채호는 고대사에 국한하지 않은, 전체로서의 「조선사」를 기획했다. 또한 실제의 본문 내용이 고대사라고 해서 그의 역사관을 밝히는 「총론」이 특정 시대에 제약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더욱이 당시의 ‘민중’ 사용이 근현대의 ‘민’에만 제한되었다고 볼 근거 도 약하다.⁰¹⁸

이렇게 본다면 ‘민중’의 편재는 「혁명선언」과 「총론」이라는 두 텍스트의 어떤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차이’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해서 두 텍스트의 구조를 비교해보았다.

두 텍스트 각각에 대해 상위빈도 30개 내외 단어들 간의 연결망 그래프를 작성하고, 이를 두 텍스트의 구조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이 연결망 지도에서 선(link)은 단어(여기서는 점, 즉 node로 표시된 부분) 간의 유사



〈그림 1〉「혁명선언」의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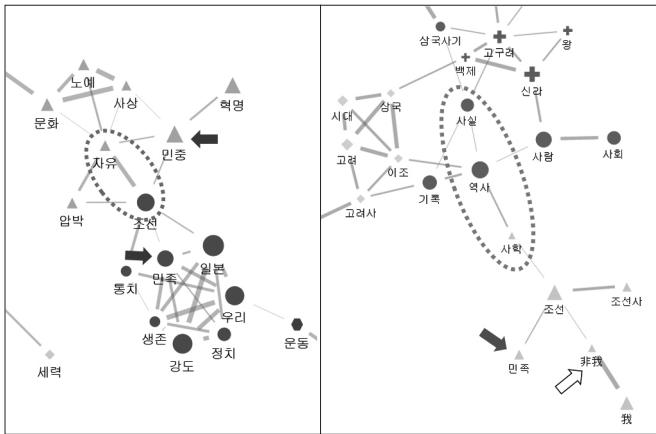
〈그림 2〉「총론」의 연결망

한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통상 두 단어가 동일 문장에서 함께 사용되면 양자를 유사하다고 간주한다. 단어들의 색깔 및 형태는 전체 그래프를 구성하는 하위 집단을 추출해서 그 집단들을 구별·표시한 것이다. 이 작업은 넷마이너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결 매개성 커뮤니티 분석(Community Betweenness)’에 따라 수행했다.⁰¹⁹

커뮤니티 분석에 따른 하위 집단의 양상과 더불어 텍스트 구조 파악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중심성(centrality)이다. 그중에서도 전체적인 범위에서 중



본문의 그림 1~4와 표 3~5는 QR코드의 링크(<http://www.yukbi.com/12/11461954>) 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 「혁명선언」의 중심부

〈그림 4〉 「총론」의 중심부

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근접중심성(doseness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지표에 특히 주목했다.²⁰²

「혁명선언」에서는 두 중심성 모두 ‘조선’이 1위를, ‘자유’가 2위를 차지했다. 〈그림 3〉에서 두 단어를 점선으로 표시했다. 「총론」의 경우 근접중심성은 ‘역사’-‘사실’ 순이며, 매개중심성은 ‘역사’-‘사학’ 순이다. 따라서 〈그림 4〉에서는 세 단어를 뚱뚱그려 점선으로 묶었다. 또한 〈그림 3〉과 〈그림 4〉에서 ‘민중’과 ‘민족’은 색칠한 화살표로 표시했다.

이렇게 보면 〈그림 3〉과 〈그림 4〉의 연결망 지도 간에는 공통점보다 차이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단어들의 면면이나 전체적인 연결망 구조에서 「혁명선언」은 이항대립 구조가 두드러진 반면 「총론」은 그런 측면이 약하다. 〈그림 3〉은 연결망 중심에 위치한 ‘조선’을 비롯하여 그 아래의 ‘일본-강도-생존’ 등이 나타내는 지배상황 대(對) 그 위의 ‘자유-압박-민중’이라는 저항의 대비가 선명하다. 연결망 아래쪽 링크의 밀도가 위쪽에 비해 더 조밀하지만, 연결 정도나 단어 수에서 위쪽의 연결망도 만만치 않다. 또한 위쪽의 노란색(세모) 집단은 아

래의 빨간색(동그라미) 집단과 구별되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반면 <그림 4>는 커뮤니티 단위로 보자면 ‘역사’를 비롯한 빨간 점(동그라미)들이 전체 그래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중심성’이라는 지표를 고려하면, 여기에 노란 점(세모)의 ‘사회’가 결합하여 ‘역사-사실-사학’으로 이어진 연결관계가 전체 연결망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 연결망 전체의 중심 의미는 ‘근대적 역사연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총론」의 투쟁사관으로 많이 주목되어온 ‘아-비아’의 구도는, 외곽선으로 된 화살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전체 텍스트 구조 면에서는 주변부에 위치한다.²²¹

둘째, 텍스트 구조상의 차이와 연동하여, 두 텍스트에서 ‘민중’과 ‘민족’의 위상도 상이하다. 「혁명선언」에서 두 단어는 모두 ‘조선’이라는 중심 단어와 직접 연결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반면 「총론」에서도 ‘민족’은 ‘조선’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연결망 지도 전체에서 보면 중심 단어인 ‘역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 전반 신채호의 주요 텍스트인 「혁명선언」과 「총론」은 ‘민중’ 사용 여부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였을 뿐 아니라, 텍스트 구조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민중’ 및 이항대립 구조의 장르별 상관성

이 장에서는 「혁명선언」과 「총론」 간의 차이가 두 텍스트의 개별적 차원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사태의 일부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검토 대상을 시기별·장르별로 확장할 것이다. 시기별로는 1920년대 전반에 인접한 1910년대 및 1920년대 후반까지 대상 시기를 확장한다.

장르별 확장 시도는 신채호의 텍스트를 글쓰기 목적이나 구조에 따라 몇 개의 변별적 단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해 있다. 예컨대 「혁명선언」은 주지하듯이 의열단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서, 명백하고 직접적인 독자를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 글은 의열단 단원들이 항상 휴대하면서 읽었다. 반면 「총론」의 경우에는 당장 독자에게 읽힐 것을 염두에 두며 작성했다고 보기 힘들다. 독립운동 일시 중지 기간에 집필했으며, 국내 가족의 생계에 보탤 원고료를 목적으로 계재를 허락했다가 고증의 미비점이 많다면 계재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²²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혁명선언」은 ‘운동적 글쓰기’로, 「총론」은 ‘학술적 글쓰기’로 구분했다.²³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글쓰기 장르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소설적 글쓰기’가 그것이다. 왜냐하면 1920년 대 후반 신채호의 텍스트에서 ‘민중’의 급증은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선언」(1928)과 「조선사연구초」에 수록된 6개 논문의 서론들(이하 「서론들」로 줄임)(1924~1925)을 각각 ‘운동적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 장르에 해당하는 텍스트로 포함했다. ‘소설적 글쓰기’에는 「용과 용의 대격전」(이하 「용과 용」으로 줄임)(1928)과 「꿈하늘」(1916)을 포함했다.

〈표 2〉는 총 6개 텍스트에 사용된 ‘집단적 주체’의 빈도를 시기별·장르별 구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의 개념사 방면 연구성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민중’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였다. 따라서 「꿈하늘」에서 ‘민중’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장르별 차이가 아니라 그것이 1910년대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머지 5개 텍스트의 경우, ‘운동적 글쓰기’와 ‘소설적 글쓰기’에서는 ‘민중’의 빈도가 다른 용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학술적 글쓰기’에서 는 ‘민중’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표 2〉 신체호 텍스트의 시기별·장르별 구분과 ‘집단적 주체’의 빈도 양상

장르	시기	1910년대 후반 (1915~1919)					1920년대 전반 (1920~1924)					1920년대 후반 (1925~1929)				
		『혁명선언』					『선언』					『혁명선언』				
운동적 글쓰기		55	15	1	9	0	33	0	0	0	0	0	0	0	0	0
학술적 글쓰기		0	20	51	2	5	0	1	2	0	0	0	0	0	0	0
소설적 글쓰기	『꿈하늘』	0	0	62	0	2	67	0	7	14	0	『용과용』	0	0	0	0

* 텍스트 아래 칸 숫자는 빈도이며 ‘민중’, ‘민족’, ‘사람’, ‘인민’, ‘국민’ 순이다.

* 「서론들」은 편의상 1925년이라는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 ‘민중’의 빈도를 표시한 칸은 음영으로 표시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민중’의 사용 양상을 기준으로 할 때, 1920년대 텍스트에서 ‘학술적 글쓰기’ 장르와 나머지 두 장르 사이에는 뚜렷한 대비가 나타났다. 이것이 단순히 ‘민중’이라는 요소 차원의 차이인지, 아니면 텍스트 구조 차원의 차이인지 파악하기 위해, 2장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연결망 지도 산출은 2장과 마찬가지로 진행되며, 6개 전체 텍스트의 핵심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근접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1·2위에 해당하는 단어 및 그와 인접한 단어, 즉 거리 ‘1’의 관계에 있는 점까지만 표시했다.²⁴ 이 그래프들을 〈표 2〉와 동일하게 배치한 것이 〈표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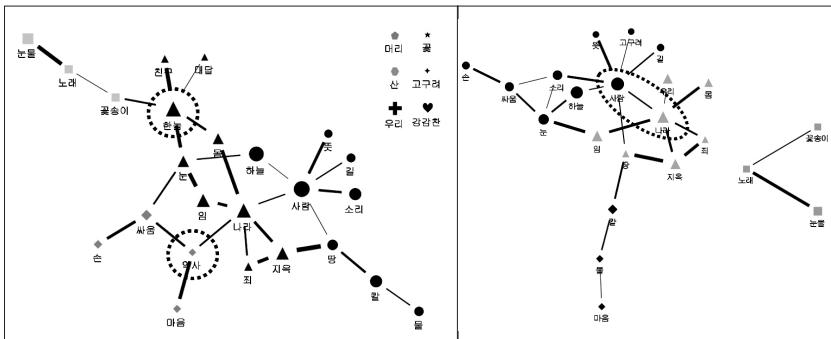
〈표 3〉을 〈표 2〉와 연결해서 보면 1920년대의 5개 텍스트에서는 ‘민중’의 고빈도 유무와 텍스트 중심부의 이항대립 구조 여부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상관성이 텍스트 장르별로 대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즉, ‘운동적 글쓰기’와 ‘소설적 글쓰기’에서는 ‘민중’의 고빈도 경향과 텍스트 중심부의 이항대립 구조가 두드러졌다. 반면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민중’의 고빈도 경향도 텍스트 중심부의 이항대립 구조도 보이지

〈표 3〉 신체호 텍스트의 시기별·장르별 구분과 연결망 그래프의 중심부 모습

시기 장르	1910년대 후반(1915~1919)	1920년대 전반(1920~1924)	1920년대 후반(1925~1929)
운동적 글쓰기		<p>『혁명선언』</p>	<p>『선언』</p>
학술적 글쓰기		<p>『종론』</p>	<p>『서론들』</p>
소설적 글쓰기		<p>『금하늘』</p>	<p>『용과용』</p>

* 연결망 중심부가 이항대립 구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선 테두리를, 그렇지 않다고 본 경우에는 점선 테두리를 둘렀다. 겹선 테두리는 어느 쪽인지 모호하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표 4〉 「꿈하늘」 연결망 속 ‘한놈’과 ‘역사’(좌측)와 두 단어 제거 이후의 연결망(우측)



- * 좌측 연결망의 두 점선은 각각 ‘한놈’과 ‘역사’를 표시한 것이다.
- * 우측 연결망의 점선은 ‘근접중심성’과 ‘개개중심성’ 1,2위를 표시한 것이다.

않았다.

이러한 흥미로운 상관성이 1910년대 소설 「꿈하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 전술했듯이 1910년대에는 신채호의 텍스트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행된 텍스트 대부분에서 ‘민중’이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꿈하늘」의 ‘민중’ 부재가 ‘소설적 글쓰기’ 장르의 특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순 없다. 이에 비해 텍스트 구조는 그와 같은 시대적 유행과 무관하게 장르별 특성을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표 3〉의 「꿈하늘」 연결망은 이항대립 구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여기서 필자는 선행연구 성과에 기대어 「꿈하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첫째, 「꿈하늘」에서 신채호는 소설의 형식을 빌어 역사 쓰기를 병행했고, 역사 쓰기는 연결망 지도에서 ‘한놈’(신채호=관찰자)과 ‘역사’로 나타났다. 둘째, 「꿈하늘」이 그런 혼종적 측면을 가졌으므로, 본 논문에서 「꿈하늘」을 「용과용」과 연결시켜 이들로부터 ‘소설적 글쓰기’의 장르적 특성을 살펴보려면 「꿈하늘」에서 ‘역사’적 측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표 4〉처럼 좌측의 「꿈하늘」 연결망에서 ‘한놈’

〈표 5〉 표 3에서 「꿈하늘」 부분을 수정한 결과

시기 장르	1910년대 후반(1915~1919)	1920년대 전반(1920~1924)	1920년대 후반(1925~1929)
운동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소설적 글쓰기			

과 ‘역사’를 제거해서 우측의 새로운 연결망 지도를 도출했다. 여기서는 ‘사람’과 ‘나라’가 근접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모두 1·2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기준으로 한 중심부 연결망을 작성해서 〈표 3〉의 「꿈하늘」그래프를 수정한 것이 〈표 5〉이다.

〈표 5〉에 따르면 1910년대의 「꿈하늘」도 포함해서 1910년대 및 1920년대 신채호의 주요 텍스트들이 중심 구조의 측면에서 뚜렷한 장르별 차이를 보였다. ‘운동적 글쓰기’와 ‘소설적 글쓰기’는 이항대립 구조를 보인 반면, ‘학술적 글쓰기’는 그렇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신채호의 6개 텍스트를 장르별로 구분해서 ‘민중’ 사용 및 텍스트의 이항대립 구조 유무를 고찰했다. 이때 「꿈하늘」은 1910년대 작품이며 소설과 역사서술이 혼재된 측면을 감안해서 ‘민중’ 부재를 예외적으로 간주했고, 텍스트 구조도 일부 조정했다. 그 결과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민중’ 사용과 텍스트 이항대립 구조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비학술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운동적 글쓰기’와 ‘소설적 글쓰기’에서는 두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4. 장르를 가르는 경계로서의 ‘민중’

우리는 2장과 3장의 분석을 통해 비학술적 글쓰기 영역에서의 ‘민중’ 사용과 이항대립 구조가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발견이 본 논문의 머리말에서 제시한 문제, 즉 1920년대 신채호의 사상 전개를 둘러싼 쟁점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나키즘의 영향이 192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에서 장르

에 따라 상이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본 논문에서 주요 지표로 사용한 ‘민중’의 사용과 텍스트의 이항대립 구조는 모두 아나키즘과 밀접하다고 말할 수 있다.²²⁵ 이런 아나키즘적 요소가 ‘운동적 글쓰기’와 ‘소설적 글쓰기’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났고, 이 점에서 그러한 장르에 속한 텍스트를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새로운 경향은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제한적인 데 그쳤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대조적 양상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듦다. ‘민중’을 비롯해서 ‘집단적 주체’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현실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을 동질적인 주체로 ‘호명’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한 호명이 시대를 선도하는 정치사상의 세례를 받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혁명선언」의 ‘민중’이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된다. 또한 신채호에게 소설은 내밀하고 자유로운 사유를 표현하는 글쓰기로 생각되는 바, 그곳에서 이항대립적 투쟁의 구도가 형성되고 그것이 아나키즘 수용과 연결되는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 구도가 「꿈하늘」에서 예비되고 「용과옹」으로 발현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지만 신채호의 ‘학술적 글쓰기’에는 다른 두 종류의 글쓰기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었다. 적어도 신채호 자신은 그의 역사서술에서 집단적 주체의 호명도, 자유로운 내면의 표현도 쉽게 허용하지 않은 듯하다. 역사 논문 원고의 언론 게재에 대해 그가 보인 태도에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세수를 하던 꽃꽂한 태도나 「혁명선언」에서 발휘한 웅흔하고 담대한 필체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 신중하고 꼼꼼하며 끊임없이 성찰하는 학자적 태도가 앞선다. 「총론」을 비롯한 ‘학술적 글쓰기’에서 아나키즘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 점과 관계 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신채호가 1920년대 전반에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고 민중을 역사 주체로 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규명했듯이 그것은 「혁명선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총론」의 투쟁사관으로 반영

되었다. 그러나 「총론」 나아가 「조선사」 본문을 포괄하는 역사서술 전체 차원에서는 이와 달랐다고 생각한다. ‘학술적 글쓰기’가 요구하는 규칙, 즉 사료적 염밀성과 객관성, 논증의 타당성 등이 엄존했고, 신채호는 이 점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또한 그는 그 요건에 미달한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하기도 했다.

당연할 수도 있는 이런 ‘차이’를 그동안 연구에서는 왜 간과했을까. 텍스트의 이항대립 구조는 차치하고라도, ‘민중’의 ‘편재’를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필자는 그 이유가 강한 문제의식이 낳은 그늘, 혹은 사각지대와 관련 있다고 본다. 그 문제의식이란 신채호의 역사연구가 독립운동의 일환임을 지나치게 의식한 점, 그리고 그의 사상을 단일한 것으로 전제하는 태도, 또는 사상의 변화를 동시적이고 전면적이며 발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인식 등을 포괄한다. 이런 점을 좀 더 일반화하면, 각각은 ‘학문의 실천성’, ‘주체의 동일성’ 및 ‘총체적인 발전 구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 차원의 강한 문제의식이, 텍스트의 장르적 차이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선행연구의 쟁점 근저에는 1920년대 신채호의 사상 변화와 텍스트 이해 차원의 논의를 훨씬 넘어서는 사유의 관행이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논의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나 필자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렇다면 다시 머리말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 1920년대 신채호의 사상에서 ‘민중’이 가진 의의는 무엇일까. 필자는 신채호에게서 ‘민중’은 민족주의의 간신이나 아나키즘 수용의 지표가 아니라, 텍스트의 장르별 차이를 드러내는 경계이자 문턱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경계란 학술적 글쓰기와 비학술적 글쓰기 간의 구분을 말한다. 신채호는 부지불식간에 그의 텍스트에서 ‘민중’ 사용의 취사 선택으로 그러한 경계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5. 맷음말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라는 층위에 본격적으로 주목해서, 1920년대 신채호의 ‘민중’ 사용과 사상적 전개 사이의 관계를 고찰했다. 분석의 주안점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민중’의 사용 빈도 및 텍스트의 연결망 분석에 두었고, 이러한 두 개의 지표가 텍스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에 착목했다.

2장에서는 1920년대 전반기의 대표적 텍스트라 할 수 있는 「조선혁명선언」과 「조선사」의 「총론」을 비교했다. 전자에서 신채호는 ‘민중’을 55회나 사용했지만, 후자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으로 두 텍스트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혁명선언」에서는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가 보인 반면, 「총론」에서는 그런 구조가 보이지 않았다.

3장에서는 2장에서 확인한 ‘민중’의 편재(偏在)와 텍스트 구조의 차이가 당시 신채호의 텍스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검토 대상을 1910년대 후반 및 1920년대 후반으로 넓히고 텍스트를 글쓰기 목적과 구조에 따라 3개의 장르로 구분했다. 「조선혁명선언」(1923)과 「선언」(1928)은 ‘운동적 글쓰기’로, 「조선사」의 「총론」(1924)과 「조선사연구초」의 「서론들」(1924~25)은 ‘학술적 글쓰기’로, 그리고 「꿈하늘」(1916)과 「용과 용의 대격전」(1928)은 ‘소설적 글쓰기’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민중’ 사용과 텍스트 이항대립 구조 모두 보이지 않았다. 반면, 비학술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운동적 글쓰기’와 ‘소설적 글쓰기’에서는 두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머리말에서 제시한 ‘민중’ 사용과 신채호 사상 전개 사이의 쟁점에 개입했다. 192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에서 아나키즘의 영향은 주로 비학술적 글쓰기에서 뚜렷했고, 학술적 글쓰기에서

는 제한적이었음을 환기했다.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가 이를 간과한 저변에는 학문의 실천성과 주체의 동일성, 총체적인 발전 구도를 중요시하는 사유의 관행이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1920년대 신채호의 사상에서 '민중'은 민족주의의 개신이나 아나키즘 수용의 지표가 아니라, 텍스트의 장르별 차이를 드러내는 경계이자 문턱이었다.

이상은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텍스트의 장르별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 그러한 차이가 어떤 역사상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텍스트의 장르별 차이에 대한 발견을 밀고 나가면, 식민지 조선 및 동아시아 차원에서 학문과 운동, 소설 등의 영역이 분화하는 양상과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런 장르별 차이를 1900년대 신채호의 텍스트에까지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은 향후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

허수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근대사상사를 전공했고 최근의 관심 주제는 '민중' 개념사 연구,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역사 연구 등이다. 대표 논저로 『이돈화 연구』와 『개벽』 논조의 사회주의화에 관한 새로운 접근—토론회 연结망 분석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종학,「신채호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기원」,『세계정치』28-1, 2007.
- 박걸순,「1920년대 申采浩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역사와 담론』50, 2008.
- 박찬승,「1920년대 신채호와 양계초의 역사연구 방법론 비교—E. 베른하임을 참고하며」,『한국사학사학보』9, 2014.
- 박찬정,「공영방송 내부 의사결정조직의 사회연결망 분석—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20.
- 이만열,「단재 신채호의 민족운동과 역사연구」,『충청문화연구』5, 2010.
- 이호룡,『신채호 다시 읽기』,돌베개, 2013.
- 허수,「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인문논총』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주

- 001 본 논문에서 ‘역사인식’은 신채호의 역사관 혹은 사론을 가리킨다. 그리고 ‘역사인식’은 정치사상과 역사서술을 매개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 002 “이 문현(‘조선혁명선언’—인용자)에는 신채호의 민족주의가 ‘민족’ 본위에서 ‘민중’ 본위로 옮겨간 증거가 잘 나타나 있다. (...) 그의 민족주의 사상은 (...) 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 중국 사회사상의 영향하에 ‘민중적 민족주의’의 래디컬한 형태로 발전”한다. 신일철,『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3~4쪽.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의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정치적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었던 민중 개념은 신채호에 의하여 내셔널리즘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김종학,「신채호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기원」,『세계정치』 28-1, 2007, 271쪽.
- 003 이호룡,『신채호 다시 읽기』, 돌베개, 2013, 236쪽.
- 004 위의 책, 237쪽.
- 005 신채호 사상 및 역사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만열은, 종전의 입장과 달리 신채호에게 기친 아나키즘의 영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민족주의자’였던 단재가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 부정 할 필요가 없다. (...) 그가 아나키스트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민족해방’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민족주의자의 반열에 끌어들여두려고 하는 것은 그가 지향했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이만열,「단재 신채호의 민족운동과 역사연구」,『충청문화연구』 5, 2010, 22쪽.
- 006 「조선사」는 오늘날 통상 「조선상고사」로 불리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채호의 작성 의도 나글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발표 당시의 원문대로 「조선사」라 부를 것이다.
- 007 이호룡, 앞의 책, 2013, 130~149쪽.
- 008 위의 책, 132쪽.
- 009 이 논거보다는 오히려 그가 부정한 ‘1924년 작성설’을 뒷받침하는 논거, 즉 「총론」이 양계초의 1922년 저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총론」의 작성 시점을 시사한 “거금 16년 전”이라는 표현은 1908년 「독사신론」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 010 김종학, 앞의 글, 269쪽.
- 011 “「조선상고사」와 「조선혁명선언」은 각각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을 표방하는 별개의 문건이 아니라 오히려 신채호의 단일한 사상을 상이한 방식으로 반영하는 작품으로 읽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운 독해 방법이 될 것이다.” 위의 글, 260쪽.
- 012 물론 김종학은 “상이한 방식으로 반영한 작품”이라는 말을 덧붙여 두 저술의 차이도

의식했음을 보여주지만 이 부분이 분석적 함의를 담은 내용이라고 보긴 힘들다.

013 근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민(民)'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국민', '인민', '민중', '대중', '민족' 등은 근대사회의 정치적 주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용어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단어들을 포괄하여 '집단적 주체'라고 부를 것이다. 통상 이런 단어들을 '국가구성원'이나 '정치 주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중', '민족' 등의 용례와 의미를 좀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그러한 한정적 의미가 많이 반영된 용어보다는 좀 더 중립적이고 넓은 뉘앙스를 가진 표현이 유용하리라 생각하여 '집단적 주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이 용어는 '집합적 주체'와 통용되기도 하지만, '집단적 주체'가 더 친숙한 표현이라 생각했다.

014 본 논문에서 주요 용어의 빈도와 의미 연결망 산출 등, 신채호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자료 및 가공에 관한 기본 정보를 본 논문의 <부표 1>에 정리해두었다. 이는 신채호 텍스트 6종 모두에 해당하며, 이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표 1>에 관한 전기 표시는 생략한다.

015 본 논문에서는 「총론」의 집필 시점을 1924년으로 보는 학설을 따른다.

016 「편재(偏在)」는 「편재(遍在)」와 정반대의 뜻을 가진다. 후자의 「편재」가 「두루 존재한다」는 의미라면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자의 「편재」는 「치우쳐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017 신채호가 본문을 1921년 무렵에 이미 모두 작성했다는 데는 학계의 견해가 일치한다. 본문의 「민중」은 아나키즘의 영향이 그의 서술에 반영되는 1923, 24년 무렵에 신채호가 「조선사」의 본문 일부를 그에 맞게 수정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호룡이 이미 언급했다. 이호룡, 앞의 책, 130~149쪽.

018 「민중」을 근현대 「민」에게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용을 전근대 「민」에까지 확장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1980년대 이후 「민중사학」의 내·외부에서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조선사」가 「조선상고사」였으므로 「총론」에 「민중」이 부재했으리라는 생각은, 「현대적」 관심을 1920년대의 사료에 즉자적으로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19 박찬정에 따르면, 「연결 매개성 커뮤니티 분석」은 「연결 매개성(Link Betweenness)」이 높은 링크를 전체 네트워크에서 분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하위 그룹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기법이다. 이때의 「연결 매개성」은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가리킨다. 이러한 연결매개 중심성이 높은 링크는 네트워크 하부집단 내부의 링크이기보다는 하부집단을 넘나드는 링크일 것이라는 데 착안한 방식이다. 박찬정, 「공영방송 내부 의사결정조직의 사회연결망 분석—문화방송 보도국 편집회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20, 27쪽.

020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노드 중심성 중에서 특히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의 3개를 중시한다. 이 중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국지적 차원의 영향력 정도를 잘 나타낸다. 반면, 「특정 노

드가 연결망의 다른 모든 노드들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근접 중심성은 연결망 전체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향력을 가진 노드가 어느 것인지를 잘 드러낸다. 매개중심성은 '연결망에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을 얼마나 잘 연결시키는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논저를 참조했다. 사이람,『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분석—기본 과정』, 106쪽; 이수상,『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2012, 259쪽; 김우주,『네트워크 중심성 이론』, 카오스북, 2015, 18쪽; 최수진,『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62쪽(허수, 「언어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 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내재적 발전론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인문논총』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146쪽에서 재인용).

- 021 신채호가 「총론」에서 '아-비아'를 강조하려 한 것은 사실이다. 그 점은 신채호가 「총론」 첫머리에서 자신의 역사관을 파리하면서 이 대목을 언급한 데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투쟁사관은 「혁명선언」의 '민중직접폭력혁명'론과 상통하는 대목이다.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된 바와 같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의 관심이 이런 '요소'적 차원의 공통점 확인에 머문 아쉬움은 있다. '아-비아'의 투쟁사관이 가진 질적 함의 뭇지 않게, 텍스트 전체에서 이 대목이 가진 영향력 혹은 위상도 중요하다. 후자의 측면에서 「총론」의 텍스트 구조를 보면, 이 텍스트의 중심은 '투쟁사관'의 천명보다는 '근대적 역사 연구 방법'의 제시에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적 역사 연구 방법'의 영향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찬승,「1920년대 신채호와 양계초의 역사연구 방법론 비교—E. 베른하임을 참고하며」,『한국사학사학보』9, 2014.
- 022 박걸순,「1920년대 申采浩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역사와 담론』50, 2008, 111쪽 참조.
- 023 여기서 '학술적 글쓰기'로 구분한 텍스트는 대부분 역사 관련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학적 글쓰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운동적 글쓰기' 및 '소설적 글쓰기'와 호응하는 층위로는 '학술적 글쓰기'가 더 어울린다고 본다. 따라서 이 '학술적 글쓰기'라는 구분은, 좀개는 '역사학적 글쓰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 024 <부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4개 텍스트에서는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 1, 2위 단어가 사실상 같아서 두 개 단어를 중심으로 손쉽게 연결망을 추출했다. 이와 달리 「혁명선언」과 원래 형태의 「꿈하늘」(이에 관해서는 <부표 1>의 표 설명란 참고)은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1, 2위 단어가 상이하다. 이 경우 세 점 및 그와 직접 연결된 단어를 표시했다.
- 025 물론 「꿈하늘」의 경우에는 아나키즘 수용 이전에 그의 사유에 내재한 투쟁사관적 측면이 텍스트의 이향대립 구조를 배태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부표 1〉 1910~20년대 신체호의 주요 텍스트 관련 기본 정보 및 가공 상황

구분 텍스트	디지털 원문			정제*		의미연결망**	
	출처	문단 수	주요 수정 (원사료 대조)***	문장 수/ 글자 수****	형태소 분석기/ 문장 수	단어 수(최 저 빈도) /연결 수/ 커뮤니티 수	중심성*****
혁명선언	위키문헌	54	'대다수 민 중' → '대다 수 인민'	117개 /7,091자	꼬꼬마 /117개	28개(6회) /43개 /4개	[근접] 조선, 자유, 민족 / 일본, 통치 [매개] 조선, 자유, 문화, 우리, 발전
총론	위키문헌	204	'조선역사 → 조선사', 원사료에 없는 설명은 삭제	371개 /34,093자	mecab /371개	29개(12회) /38개 /5개	[근접] 역사, 사실, 기록, 이조, 고구려 [매개] 역사, 사학, 조선, 사실, 고구려
선언	전집 (새활자본)	8	-	40개 /1,871자	수작업 /357개	21개(3회) /21개 /2개	[근접] 우리, 彼等, 無產, 民衆, 破壞 / 生存 [매개] 彼等, 우리, 無產, 破壞, 否認
꿈하늘	위키문헌	485	14쪽 분량 누 락 (전집 7권 522쪽: 22행 - 536쪽: 23행)	523개 /21,973자	mecab /4967개	30개(12회) /28개 /4개	[근접] 사람, 나라, 땅, 소리, 하 늘 [매개] 사람, 나라, 땅, 칼, 소리
용과용	위키문헌	193	3장 제목의 '민중' 복원, 장 번호 복원 등	287개 /12,672자	mecab /2797개	27개(7회) /38개 /3개	[근접] 천국, 민중, 드래곤, 소리, 말일 [매개] 천국, 민중, 드래곤, 소리, 상제

* 명사와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남기되, 신체호의 텍스트에서 '아-비아'가 중요한 점에 비추어 대명사 '우리', '彼等' 등도 포함시켰다. 표기법을 통일했다.

** 넷마이너 43을 사용했다. 동일 문장 내 동일 단어 2회 이상 출현 시 해당 단어의 빈도는 1회로 간주했다. 커뮤니티는 연결망 그래프에서 최대 연결망(컴퍼넌트)에 국한한 것이다.

*** 「꿈하늘」에서 14쪽 분량의 원문 내용이 디지털화에 누락되었으나, 이 부분의 누락이 해당 텍스트의 구조 파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디지털화된 내용 만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선언」은 필자가 원사료를 직접 입력했다.

**** 너무 긴 문장은 적절하게 세분했다. 글자 수는 공백을 제외한 것이다.

***** 단어 순서는 중심성이 높은 것부터 5순위까지 쉼표로 구분하여 차례로 나열했다. 공동 순위인 경우 '/'로 표시했다. 「꿈하늘」의 경우 '한놈'과 '역사'를 제거한 연결망의 중심성이다. 참고로 두 용어를 제거하기 이전 연결망의 중심성은 다음과 같다. [근접] 나라, 눈, 사람, 몸, 하늘. [매개] 나라, 한놈, 사람, 눈, 몸

Texts and ‘Minjung’ by Shin Chae-ho in the 1920s

Hur, Soo

The word ‘Minjung’, which was vigorously presen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Revolution(1923), was never u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Joseon History(1924). As a result of processing the two texts using the text mining method and analyzing the lexical network based on them,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text structure between the Revolutionary Declaration and the General Discussion as well as the usage of “Minjung”.

Four main texts from the late 1910s to the late 1920s were added to the analysis targe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use of ‘Minjung’ and the text genre in movement writing (Revolutionary Declaration, The Declaration) and novel writing (Dream Sky, Dragon and Dragon). On the other hand, in academic writing (General Discussion, Introductions), neither the text-oriented binary opposition structure nor the use of “minjung” were observed.

Finally, in Shin Chae-ho’s thought in the 1920s, ‘Minjung’ was not an indicator of the renewal of nationalism or acceptance of anarchism, but a boundary and threshold that revealed differences by genre of text.

Keywords: Shin Chae-ho; ‘Minjung’; nationalism; anarchism; omnipresence; the Declaration of the Korean Revolution; the general discussion of the Joseon History; text mining method; text genre; academic writing; movement writing; novel writing.